

# 라오스 개혁 · 개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권 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 · 경제학박사

- I. 머리말
- II. 라오스 개혁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 III. 최근 주요 경제 현안
- IV. 외국인투자환경 및 투자유치성과
- V. 맺음말

## I. 머리말

1986년 말 제4차 전당대회에서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이래 라오스는 대내적으로 국영기업 민영화, 재정 및 금융개혁 등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1988년 7월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한 라오스는 1994년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는 등 투자장려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결과, 1996년 상반기까지 수력발전소 건설 등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30여 개국으로부터 총 58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97년 태국의 경제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라오스는 환율 급등, 곡물류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불안을 겪기도

하였다. 최근 경제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62달러(2003년)에 지나지 않으며, 하루 수입이 1달러 이하인 빈곤층이 30%에 달해 빈곤퇴치문제가 국가적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sup>1)</sup>의 대부분은 산지와 고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오스는 삼림면적이 전국토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임산자원과 수력자원은 풍부하나, 경지면적은 3%에 불과한데 비해 인구의 대부분이 농림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혁·개방정책이후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국인 라오스의 경제기반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총인구는 550만 명에 불과하여 내수시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성장기반도 열악한 실정이다. GDP에서 농업이 약 50%를 차지

\* 본고의 내용은 당행의 공식의견이 아님.  
1)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한 크기인 23.7km<sup>2</sup>임.

하고 있고 제조업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쌀농사가 농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농기술 및 관개 등이 발달하지 못하여 기후조건에 따라 경제성장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제조업은 태국 및 유럽 일부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식품가공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으나, 외자유치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라오스는 인프라 미비, 각종 규제 등의 문제이다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운송비용까지 높은 점은 고용효과가 높은 제조업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되면서 임가공업을 중심으로 대미우회 수출을 위한 제조업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에서 2004년 11월 라오스와의 무역관계 정상화 법안이 통과되고, 12월에는 양국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의 라오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금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확대는 물론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대된다면 라오스 경제개발과 공업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라오스는 2004년 10월 외국인투자법 3차 개정을 통해 투자절차 및 제반 세제우대조치를 정비함으로써 투자환경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고는 경제개혁 추진현황과 개발과제를 살펴보고 라오스 경제개혁의 주요 현안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외국인투자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투자유치 실적을 분석함으로써 라오스 개방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라오스 개혁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 1. 신경제메카니즘의 기본방향

라오스는 1986년 11월 4차 전당대회에서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하고 '틴타나칸 마이(신사고)와 라복푸마이(신제도)' 개념에 의거하여 신경제메카니즘(NEM)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1988년 7월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고,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왔다. 정치적으로는 1991년 헌법 제정을 통해 3권 분립, 공산당의 역할 축소,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점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점진적 개혁모델에 따라 정치개혁보다는 경제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라오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개혁초기 라오스의 1인당 GDP는 300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농림업에 종사하는 최빈개도국으로서 자본, 기술 및 인력 부족, 협소한 국내시장 여건 등으로 성장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농업, 삼림,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총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에서 시장경제의 급속한 도입은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국영기업중심의 경제적 비효율성 누적 등으로 인하여 세출은 세입을 대폭 상회하는 재정적자 확대 및 수입이 수출을 대폭 초과하는 무역적

자 구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발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지향적인 경제개혁을 추구하면서 세계은행,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경제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물가 및 재정 등 거시경제의 안정이 달성되었다. 그동안 토지개혁, 국영기업 민영화, 금융개혁, 정부보조금 축소, 외자도입 확대 등이 경제개혁의 주요 성과라 할 수 있고,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무수익여신(Non Performing Loan: NPL)을 포함한 국영은행들의 구조조정, 국영은행의 상업적 운영, 농촌 소액금융 지원, 은행 시스템의 확장 등의 재정개혁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88년 7월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한 라오스는 1994년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투자장려책을 시행하여 동남아 금융위기 이전까지 30여 개국으로부터 각종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수송 및 통신의 현대화, 수력발전량 증대, 인력개발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외국의 원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해 왔다.

라오스 정부는 2001년 하반기부터 공공자원 사용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공공지출과 국영기업의 관리능력 향상, 국영은행의 투명성 강화, 천연자원 관리능력 강화의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 중이다. 광업과 수력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국영기업과 국영은행의 재정손실을 막는데 전용되지 않게 하려면, 라오스 정부가 공공자원의 사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도해 온 시장경제로의 편입을 완성

하기 위해서 무역과 민간부문개발 영역에서의 구조개혁을 계속하고 있다.

## 2. 거시경제안정화 정책

라오스 정부는 1987년 중반 가격 및 환율개혁에 착수하였다. 우선, 경제개혁의 기본 조치로서 공공사업과 우편, 원거리 통신 서비스와 항공운송 가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격자유화가 추진되었다. 가격규제 철폐와 함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은 물론 물가안정을 위해 거시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혁초기 매년 계속되는 예산적자는 인플레이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정부 및 국영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부 억제, 세제개혁을 통한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체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1988년 라오스 정부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고, 상업은행에 대한 자율적인 경영권을 부여함으로써 은행체제를 대폭 개편하였다. 1990년 6월에는 중앙은행 설립법을 제정하여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 및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재정과 금융을 분리하였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임금지불과 신용수요가 증대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1989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약 60%수준으로 치솟기도 하였다. 이후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993년에는 한자리 수준인 6.3%까지 떨어졌다. 한편, 1988년 7월에는 환율이 시장환율과 근접한 비율로 단일화됨으로써 1989년 이후 명목환율은 중앙은행에 의

〈표 1〉 금융위기 이전 리오스의 주요경제지표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실질 GDP 성장률 (%)	14.3	6.7	4.0	7.0	5.9	8.1	7.0	6.9	6.9
소비자물가상승률 (%)	59.5	35.7	13.4	9.9	6.3	6.8	25.7	13.0	27.5
대미환율(Kip/달러, 연말)	714	696	712	717	717	719	925	954	2,152
대외채무잔액 <sup>주)</sup> (백만 달러)	238	309	338	414	492	579	675	784	1,081

주: 구동구권에 대한 채무(1995년까지의 약 13억 8,200만 달러) 제외.  
 자료: IMF, 세계은행.

해 조정되어 크게 안정되었다. 즉, 공식환율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공식 환율간의 격차는 줄어들어 1989년 후반부터 공식환율은 달러당 700~720킵(kip)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국내 인플레이션 수준이 주변국들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명목환율의 고정은 실질환율을 평가 절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도 환율이 절상된 이유는 1980년대 이후 외국 원조와 차입이 증가하는 한편 수출이 증가됨에 따라 외환공급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지만, 실질환율의 평가절상은 리오스의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가격에 민감한 수출산업에 대한 기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리오스 정부는 지난 1995년 환율인상을 시도하여 1997년 말 공식환율이 달러당 2,152킵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리오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출삭감과 정부저축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해 왔고, 신경제메커니즘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의 실행 이후 세계개혁안을 발표하여 왔다. 이 개혁안들은 과거 국영기업을 통한 세수의존에서 탈피하여 수입과 소비,

재산세 그리고 관세 등으로 세원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8년에 조세징수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국영기업으로부터의 재정수입을 새로운 조세체제에 따라 소득세, 매출세, 관세 등으로 전환하고, 국영기업에는 자율적인 생산 및 가격결정권이 주어졌다. 1989년 후반과 1991년에 걸친 두 차례의 세계개혁은 재정관리를 중앙집권화에 기여하고, 재정적자의 규모를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리오스 정부의 효과적인 통화정책으로 개혁초기의 급등하던 물가는 1992년 이후 한자리 수준으로 안정되는 등 거시안정화 정책이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리오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1999년 10월에는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은행업무의 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부실채권 문제와 은행의 관리업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3년에는 상업은행의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책은 일반적으로 억제된 편이었고 신용평가가 강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무수익여신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리오스 은행이 실시한 신중한 대출관행 때문이다.

최근 재정·은행감독국(Financial and Banking Supervision Department)은 대출분류에 대한 규정(No. 98/BOL), 외환에 대한 규정(No. 178/BOL), 대출한도에 대한 규정(No.3/BOL)을 개정했으며, 이 규정들은 2004년 말 발효되었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3개의 신용저축조합(SCU) 시범 사업을 허가했는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 SCU에 7천 달러의 종자자금을 지원했다. 3개의 국영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2002년 초에 시작되어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초 라오스 은행은 법무부에 다음 4가지를 목표로 한 상업은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첫째 모든 은행은 법 아래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둘째 내·외부 감사와 이사회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영 및 민간은행에서의 기업지배구조를 향상시키고, 셋째 건전한 의사결정능력을 확립하며, 넷째 중앙은행은 의사결정, 금리결정 및 상업적 원칙에 의거한 대출 등의 분야에서 국영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법무부의 검토 이후 개정안은 총리실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 3. 국영기업 민영화

개혁초기 국영기업은 중앙정부 산하 200여개, 지방정부 산하 440여개 등 640개사에 달하였으나, 1988년 이후 중앙정부 소유의 중·대형 기업 50여 개와 지방정부 산하 230개 이상의 중소형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중앙정부 소유의 기업은 90여개에 불과하게 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국영기업 민영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국영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매우 낮고, 주로 임대(leasing)방식을 민영화 방식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오스 정부는 1992년 이후 민영화 방안을 주로 임대방식에 의존해 왔는데, 1993년에는 중앙정부 산하 18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데 적어도 12개의 기업들이 임대계약에 의해 처리되었다.

세계은행과 IMF의 지원 하에 국영기업개혁이 신속히 추진되면서 2004년 현재 당초 640여개 국영기업은 148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IMF는 1989~92년 중 2,501만 SDR의 구조조정차관(SAF)과 1993~1997년 35억 1,900만 SDR의 확대구조조정차관(ESAF)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라오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임대방식에 의존하여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라오스는 다른 체제 전환국가와 달리 중공업기반이 취약하여 음료제조업과 광업, 제혁, 석탄, 쌀, 꿀, 목재 가공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합병 및 임대방식으로 비교적 단시일 내에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세제 개혁에 따라 매출세 및 법인세로 대체되어 국영기업으로부터의 세수입은 감소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도 대폭 삭감되었다. 국영기업에 대한 국내신용은 1989년 12월에 366억 킵으로 전체 비정부 국내신용의 89%에 해당하였으나, 1993년 후반기에는 183억 킵으로 전체 비정부 신용의 2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와는 반대로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규모는 국영기업을 민영

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비중이 비정부 국내 신용의 11%에서 55%로 증가했다. 한편, 국영기업은 1988년 비농업 노동력의 약 10%인 16,000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나, 민영화가 본격화되면서 국영기업의 고용인력이 1992년 6,000명으로 감소되었으며, 민영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혼란은 별로 없었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국가자산관리위원회(State Asset Management Board)는 리오스의 모든 국영기업을 실적에 따라 평가한 자료를 완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31개의 국영기업(중앙기업 7개, 지방기업 24개)이 매각 또는 해체 판결을 받았고, 9개의 국영기업이 현재 구조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총리실 산하 기업활성화국(Business Promotion Office)은 2003년 12월 외부자문을 받아 Lao Airlines, BPKP, Pharmaceutical Factory No. 3, Nam Papa Lao 등 4개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계획은 2004년 1월 총리포고 59호(Prime Minister's Notice No. 059/CPMO)를 통해 채택되었으며, 동년 4월 총리실의 국영기업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모든 관련부처에 전달되었다. 위의 4개 회사는 매년 독립적인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 실적과 구조개혁의 진행상황, 그리고 해당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나머지 5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가 채택되었다.<sup>2)</sup>

리오스 정부는 수도, 전기, 통신, 항공 등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가격정책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인프라 서비스 공급부문에 점점 민간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하지만, 아직 리오스에서 공공부문 서비스는 대부분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민간투자자본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요금과 가격정책을 도입해 왔다. 실행방안은 요금과 요금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 요금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서비스 공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요금이 인상되었다.

#### 4. 경제개발전략과 빈곤퇴치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에 힘입어 리오스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으며, 빈곤층의 비율도 1990년 53%에서 1997년에는 38.4%로, 2002년에는 30%로 낮아졌다. 그러나 아시아 저개발국들의 빈곤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캄보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어서 최빈국인 리오스의 빈곤상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리오스는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 당시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경제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정부의 빈곤퇴치 정책이 모든 정책에 우선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회복세

2) DAFI, Lao State Fuel Enterprise, Lao Export-Import Trading Company, Bridge-Road Construction Company No. 13, Agro-industrial Development Company(DAI) 등이다.

를 보이고 있는 라오스 경제는 국제수지 안정, 외자유입 및 수출 증가 등을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퇴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라오스의 가장 심각한 성장저해 요인은 물류체계가 크게 낙후된 열악한 경제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라오스는 철도 시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포장률도 극히 낮아 지역간의 교류 및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농산품의 시장접근 제약과 이로 인한 식량부족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최근 라오스 정부는 자국의 빈곤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자치단위별 빈곤 범주를 확정하는 등 체계적인 빈곤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곤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2000년 이후 라오스 정부는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2001-2005(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01-2005), 공공투자계획(Public Investment Plan), 거시경제정책 및 개혁 프로그램(Macro-economic Policy and Reform Framework) 등을 통해 경제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2001-2005'는 라오스 정부의 비전 2020을 포함하는 최초의 국가발전계획으로서 목표 기간 중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하기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2020년까지 최빈국 졸업을 위해 2005년까지 빈곤가구 감소, 아편 없는 국가 실

현, 2010년까지 빈곤퇴치 정책의 효과로 생활비 중 식품비 비중 감소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공공부문은 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공공투자계획(Public Investment Plan: PIP)은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도로, 상수도, 전력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및 농촌 그리고 산악 및 오지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경제사회개발 계획과 병행되어 추진되고 있다. 2001~2003년 중에는 운송, 통신부문 등을 우선추진 부문으로 설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다.

거시경제정책 및 개혁 프로그램(Macro-economic Policy and Reform Framework)은 거시경제 안정이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사회적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정책추진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라오스 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바, 구조개혁 및 제도정비를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농업위주의 경제구조를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sup>3)</sup>

3) IMF의 지원으로 2001~2003년 중 '빈곤퇴치와 성장용자'(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협정을 맺고 정책과 구조개혁의 자문 및 지원을 받고 있는데 주요 경제목표는 2003년까지 연 7% 성장, 물가 상승률 8% 이내 억제, 수입의 3개월분 외환보유액 확보, GDP의 25%로 총투자(Gross National Investment) 유지, 재정수지적자 GDP 대비 7% 이내 관리 등임.

〈표 2〉 1달러 이하 빈곤선 인구 (1990~2002)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캄보디아	48.3	-	-	-	-	-	36.7	38.4	37.7	41.7	44.6	45.0	44.2
라오스	53.0	-	48.8	-	-	-	41.3	38.4	36.6	36.7	35.1	31.3	30.0
베트남	50.8	-	-	39.9	-	-	23.6	-	16.4	15.2	15.2	14.6	13.6
인도네시아	20.6	-	-	14.8	-	-	7.8	-	-	12.0	9.9	9.2	7.2
말레이시아	2.0	-	1.5	-	-	1.0	0.8	0.5	0.5	0.5	0.5	0.5	0.5
필리핀	19.1	19.8	-	-	18.4	-	14.8	12.1	13.7	13.5	13.5	11.9	11.5
태국	12.5	-	6.0	-	-	-	2.2	-	3.3	5.2	5.2	3.6	2.4
몽골	-	-	-	-	-	13.9	-	-	-	-	-	-	-
네팔	-	-	-	-	-	37.7	-	-	-	-	-	-	-
파키스탄	47.8	-	-	33.9	-	-	31.0	-	-	-	-	-	-
방글라데시	-	-	35.9	-	-	-	29.1	-	-	-	36.0	-	-
중국	31.5	-	-	29.0	-	-	16.4	-	16.1	17.8	15.4	14.3	12.7
인도	46.6	-	51.1	-	45.1	47.1	46.2	44.2	-	34.7	-	-	-

자료: ESCAP(2004), World Bank, *East Asia Update: Regional Overview*, October 2003.

### Ⅲ. 최근 주요 경제 현안

#### 1. 경제성장

2000년을 전후로 경제회복국면에 접어든 라오스는 매년 5~6% 수준의 안정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인 해외 원조 유입과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6%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환율도 안정적이다. 라오스 정부의 호전된 재정 관리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높은 성장률과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한 중기적 개혁프로그램과 공공지출 프로그램인 ‘국가성장과 빈곤퇴치전략(NGPS/PR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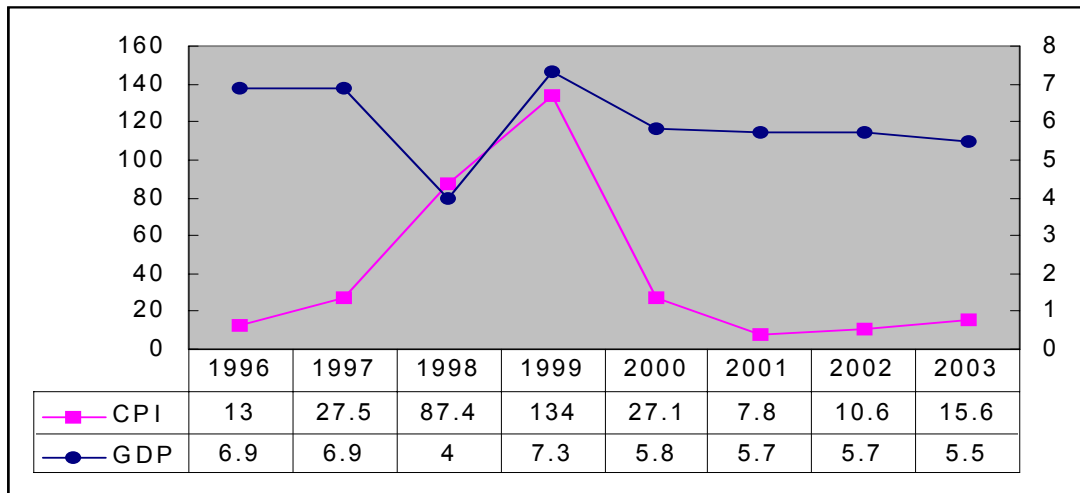
이 200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2004년 4월 정부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지출관리, 국영기업, 은행, 무역, 민간부문 활성화 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개혁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라오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추진계획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역내 수입관세를 낮추고 있다. 2003~2004 회계연도 상반기 세입실적은 1/4분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총 세입은 연 목표의 42%에 달해 전년도보다 높았으며, 초과지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지출은 예산균형에 맞게 이루어졌다.

2004년 실질 GDP는 민간투자의 증가, 관광산업의 회복, 수출증가에 힘입어 5.8% 성장이 예상된다. 라오스의 이러한 경제성



(그림 1)

라오스의 연도별 경제성장률과 물가 추이(1996~2003)



자료: World Bank, *Lao PDR Economic Monitor*, 2004. 5.

장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베트남, 태국, EU의 경제성장에 힘입은 것이고, 라오스 정부 또한 기업 환경과 외국자본 유치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2004년 농업부문 성장은 4%대로 양호했으나, 조류농가는 조류독감의 발발로 타격을 받았다. 홍수와 가뭄을 피했기 때문에 우기의 벼농사 생산은 라오스 정부의 예상보다도 늘어났으나, 커피 생산업자들은 날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농업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의 개발과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신용대출(rural credit)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법 벌목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나, 주변국에 대한 농림업 생산품의 수출은 증가했고, 라오스 정부는 베트남과 농업협정을 체결했다.

2003년에는 공업부문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대외무역환경 개선으로 라오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류부문은 EU로부터의 수요확대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고, 2004년 미국과의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 자격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미국시장으로의 우회진출이 가능해져 앞으로 제조업 부문의 외자유치와 수출증대가 크게 기대된다.

건설부문은 도로, 건물, 발전소 등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의 증가에 힘입어 호황을 맞고 있고, 수력발전과 관련하여 베트남과의 에너지협력 노력이 진전되고 있다. Nam Theun 2 수력발전소 프로젝트(NT2)에는 프랑스의 국영 전력회사인 Electricite de France(EdF)가 복귀했고, 태국의 국영 전력회사인 Energ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EGAT)가 2009년부터 NT2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기로 계약함으로써 전망이 밝다. NT2는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1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라오스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업부문에서는 앞으로 기대되는 해외자본투자 광업프로젝트들이 진전되고 있는데, 호주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인 세폰(Sepon) 광산개발로 금광에 대한 상업적인 관심이 새로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의 국영, 민간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오스와 태국 관리들이 따로 모임을 가진 바 있다.

2003년에는 조류독감과 사스(sars)의 발발로 인해 라오스와 동남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관광산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서비스부문 성장이 저하되었다. 라오스 정부는 국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4년 1월 비엔티엔에서 ASEAN 관광장관회의를 주최하였다. 안전 문제가 점점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완전히 부흥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부문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04년에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하였다. 한편, 전화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통신서비스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와의 항공여행이 자유화되었다. 무역증진을 위해서 태국과의 교통망이 자유화되었고, 태국 정부는 두 건의 교량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 2. 물가 및 환율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2003년 상반기에 상승했다가 2004년 4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식량

부문 물가상승률은 계속 하락해 2004년 4월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이런 현상은 라오스의 재정적자와 국내신용관리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미곡가격상승과 전력이나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내 공공요금 인상은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4)</sup>

2003~2004년 12개월 동안 식량부문 CPI는 평균이 15%였으며, 최고치는 2003년 10월의 18.8%였고, 전체적으로는 12~18%사이를 유지하였다. 미곡 가격이 상승하고, 교통과 통신부문 CPI는 유가상승 때문에 3월~5월 사이에 18~19%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4년 4월에는 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가정용품 가격은 2003년 초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점점 낮아져 6% 정도에 이르렀다. 주류와 담배의 가격은 라오스 정부가 세금을 인상한 결과, 2003년 1월에 1%에서 2004년 2월에 11%로 증가했으나 2004년 3월과 4월에는 9.9%로 하락하였다. 2003년의 건기 동안에는 85~90%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택가격이 우기에는 하락하여 2004년 4월에는 20% 정도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사스와 조류독감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라오스의 의료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보건관리 시스템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의 경우 킵(kip)화는 미국 달러화와 태국 바트화 대비 ±1% 이내의 미세한 변동만을 보였지만, 2003년 전반적으로는 연평균

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식량(전체 CPI의 46.2% 차지) 교통과 통신(17.9%), 가정용품(8.1), 주류와 담배(6.4%), 주택(3.8%), 의료서비스(3.8%) 등이다(World Bank, 2004 참조).

5% 정도 평가 절하되었다. 2003년 말 경  
 칩화는 강세를 보였으나, 2004년 초에는 미  
 국 달러화에 대해서 다시 약간의 약세로 전  
 환되었다. 2004년 1월 중순에는 미국 달러  
 화에 비해 전년대비 2% 정도 절상되었으  
 나, 환율불안정의 주요 원인들(주로 대규모  
 의 예산적자,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칩화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부족한  
 편으로, 2003년 8월에는 (2003년 수입추정  
 치에 근거할 때) 4개월분의 상품수입액에  
 해당하는 1억 7천만 달러까지 떨어져 정부  
 의 통화방어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평균 환율은 미화 1달러 당 10,600칩  
 을 기록하고 있다.

### 3. 재정구조

세입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2003~  
 04년 1/4분기의 부진 이후에 2004년 3월  
 의 세입총액은 목표액을 넘어섰다. 세입은  
 전년도 같은 시기에 39%였던 것에 비해 연  
 간 목표액의 42%에 도달했으나, 연간 목표  
 액을 맞추려면 특히 지방에서의 지속적인  
 세입징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GDP에서 차지하는 세입의 비중은 줄어드  
 는 추세이다.

첫째, 목재수출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집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재 로열티가 2001~  
 02년도의 최고치에 비해 1.25% 하락하였  
 다. 둘째, 정부의 연결계정으로 송금되는 지  
 방의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 셋째, 국내 생  
 산품에 대한 거래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동

시에 수입세도 줄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  
 전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3~  
 04년도에 정부는 세관과 재무부처를 중앙집  
 권화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세입의 이전과  
 회계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발표된  
 세제혜택(Tax Incentives)에 대한 새 규정  
 을 시행할 경우 2005년에 세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 법령을 통해 감소하는  
 세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행규정을 준  
 비할 계획이다. AFTA 가입으로 관세를 인  
 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세입은 부  
 분적으로 관세수입의 감소 영향을 받을 전  
 망이다.

한편, 라오스 정부는 공공지출 정책에 만  
 성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본지출의 규  
 모가 사용가능한 기준예산에 부합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3/04년 예산에  
 서 정부는 전체 지출에서 경상지출의 규모  
 를 증가시키므로써 이러한 추세를 완화시키  
 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  
 상지출 역시 줄어들고 있다. 현재 라오스는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의 불균형 때문에 재정  
 경제부의 예산국(Budget Department)에  
 서는 3년 연속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  
 준에서 각 부문의 지출을 분석한 자료를 발  
 간하고 있고, 2003년 9월 말까지 연체금에  
 대한 조사를 완성하는 데에도 진전을 보이  
 고 있다. 공공지출관리 부문의 투명성을 강  
 화하고 정부조달을 향상시키며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 4. 교역부문

그동안 리오스 정부는 국제경제와 지역경제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04년 3월에 수도 비엔티엔에서 최초의 국제엑스포 행사를 개최하였다. ASEAN 국가들과 중국 등지에서 200여 개의 회사가 참가한 이 행사를 통해 리오스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해외 파트너들과 상호무역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무역활성화를 위한 리오스 정부의 최근 노력에는 2004년 2월 4일에 발표된 무역경쟁에 대한 총리령 15호(Prime Minister Decree No. 15)와 2004년 1월 5일에 발표된 상품생산촉진에 대한 가이드라인 4호(Ministerial Guideline No. 04/MOC)가 있다. 리오스에서 무역이 점차 자유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의 가격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빈개도국으로서 리오스는 여러 가지의 관세특혜대우를 받고 있는데, EU,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와 일부 구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받는 일반특혜관세(GSP)와 함께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부터 받는 ASEAN 특혜관세(AISP), 그리고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등이 있다. 그러나 많은 리오스 수출업자들은 생산품확인, 원산지증명, 품질, 운송비용, 통관절차 등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특혜제도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과 비교했을 때 2003년 리오스의 수출은 17% 성장했고(3억 6,600만 달러), 수입은

8%(5억 800만 달러) 증가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리오스 수출성장을 주도한 것은 광업과 수력발전 등의 천연자원 부문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업, 제조업, 그리고 관광산업이 리오스 경제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003년의 경우 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중국과의 무역이 특히 강세를 보였고 ASEAN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관광산업은 부진했지만 서비스부문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반면에 수입은 2002년보다는 빠르게 증대하고, 지난 몇 년간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소비재, 식량, 건축자재, 연료와 프로젝트성 물품 위주로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국, 베트남 및 주변국들과의 경쟁 때문에 크게 줄어들었으나, 태국은 여전히 리오스의 중요한 수입대상국이다.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으로부터 정상무역관계(NTR) 지위를 부여받으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므로 2004~2005년에도 수출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 수출의 25~40%를 차지하는 의류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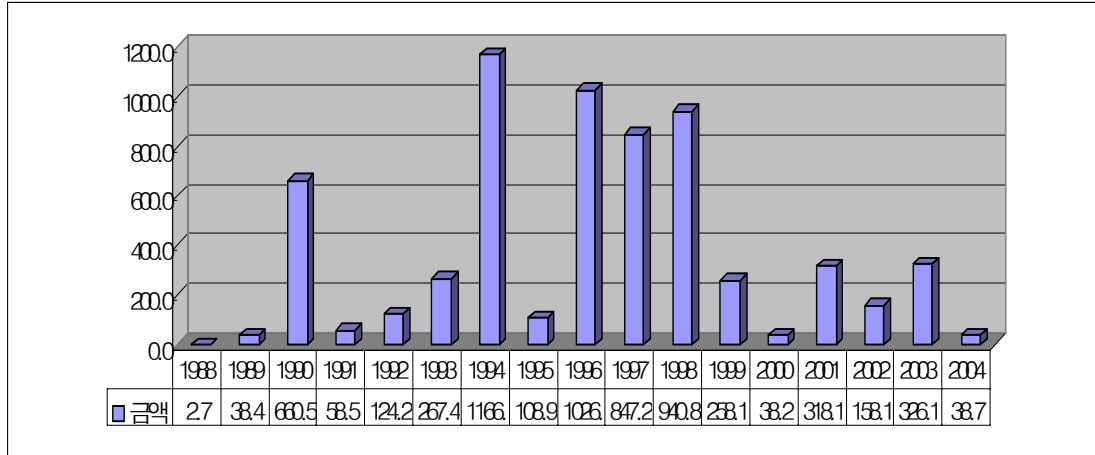
#### IV. 외국인투자환경 및 투자 유치성과

1986년 11월 제4차 전당대회 이후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온 리오스는

〈그림 2〉

연도별 직접투자 유치현황 (1988~2004)

단위: 백만 달러



자료: DDFI.

1988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국인투자법(Laotian Investment Law)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1989년에는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외국인투자법의 제정·공포에도 불구하고, 인근 국가와의 외자유치경쟁, 세제의 모호성, 열악한 인프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미미하였다.

이에 라오스정부는 1994년 3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투자 인센티브의 확대와 제조업·서비스업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외국인 투자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오스 외국인투자진흥법'을 공포하였다.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투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3개월 규정을 2개월로 단축하고, 외자기업의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기존의 15~55%에서 20%로 단일하게 인하·조정하였기 때문

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세율 인하 및 수출입가공용 기계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세 면제하였다. 또한, 인접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경개방을 확대, 중국 운남성, 베트남, 태국과의 국경에 4개의 검문소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태국-라오스-중국, 태국-라오스-베트남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육로를 허용한 바 있고, 일본의 원조자금을 토대로 중남부 지역의 사바나케트와 태국 무카단을 연결하는 제2의 우호교를 건설하였다. 일본은 사바나케트와 캄모안 지역개발사업을 태국 북동부의 국경지대 개발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는 그동안 투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조정 및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Committee: FIMC)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5) FIMC가 속해 있던 계획협력위원회(Committee for Planning and Cooperation: CPC)를 세분화하여 투자협력위원회(Committee for Investment and Cooperation: CIC)를 설립하면서 FIMC는 CIC 산하기관이 되었다.

〈표 3〉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현황 (1988~2004)

단위: 천 달러

부 문	2002	2003	2004	누계('88-04)		
				금액	비중(%)	건수
전 력	22,000	72,800	2,000	5,400,800	67.3	19
통 신	12,940	414	7,000	657,205	8.2	16
호텔, 요 식업	24,050	33,808	3,100	575,924	7.2	82
가 공 수 제 품	64,388	22,959	7,098	317,057	4.0	207
서 비 스	13,293	127,012	919	250,356	3.1	180
목 재 가 공 업	5,473	2,774	-	177,133	2.2	52
농 업	6,395	7,270	11,600	178,925	2.2	124
건 설 업	13,698	35,996	1,917	119,263	1.5	51
광 업	1,830	22,475	9,687	104,594	1.3	56
무 역 업	10,337	10,750	-	89,620	1.1	147
금 융	-	-	-	71,800	0.9	9
섬 유	4,700	650	2,450	71,944	0.9	84
컨 설 팅	723	510	101	9,391	0.1	52
총 계	179,828	337,418	45,872	8,024,011	100	1,078

주: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자와 리오스 투자가 합계된 금액임.  
 자료: DDFI.

해 왔다. 이를 위해 FIMC는 1996년 5월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재편된 바 있다.<sup>5)</sup>

1994년 외자법 개정이후 다양한 투자장려책에 힘입어 199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액이 수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16.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4~1998년까지 수력발전은 물론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연간 8~12억 달러의 투자유입이 이루어졌으나,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연간 투자유치액은 2~3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림 2〉 참조).

산업별 유치현황을 보면 수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된 전력부문이 전체투자액의 67.3%를 차지하였고, 통신부문 8.2%, 호

텔 및 관광부문은 7.2%, 가공수제품이 4.0%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편중현상이 심각한 실정인데, 섬유 및 봉제, 가공업과 수제품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의 경우 건수로는 291건에 이르고 있으나, 투자금액은 3억 9천만 달러에 불과하여 건당 평균투자금액이 130만 달러 수준이어서 공업화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35개국 이 리오스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리오스는 인접한 태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1980년대 후반 국경분쟁이 해소된 이후 태국은 리오스의 교역 및 투자 1위국으로 급부상하였다. 양국은

〈표 4〉

라오스의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10개국 (1988~2004)

단위: 천 달러

국 가	2002	2003	2004	누계('88-04)		
				금액	건수	평균투자
태 국	13,935	80,835	22,956	2,751,429	290	9,488
미 국	8,000	2,260	2,720	1,073,039	54	19,871
말 레 이 시 아	26,553	30,015	-	779,130	34	22,916
프 랑 스	8,706	15,585	450	447,209	112	3,993
중 국	55,353	115,054	8,515	342,534	142	2,412
베 트 남	6,372	5,802	1,382	307,498	40	7,687
한 국	14,597	5,280	2,201	227,329	91	2,498
노 르 웨 이	-	21,800	-	79,000	5	15,800
대 만	2,620	-	-	72,912	38	1,919
싱 가 포 르	1,300	35,800	-	59,952	27	2,220
뉴 질 랜 드	-	-	-	50,500	2	25,250
호 주	1,690	5,414	-	39,537	47	841
러 시 아	950	1,500	-	32,840	20	1,642
영 국	843	4,900	-	30,834	21	1,468
일 본	811	1,000	500	25,339	36	704
합 계	158,145	326,094	38,724	6,378,706	1,053	6,058

주: 투자승인금액은 외국인 순투자액 기준이며, 3자 합작도 포함하고 있음.  
 자료: DDFI

1988~89년에 걸쳐 태국-라오스 양국 총리 교환방문으로 국경분쟁을 해소하고, 1992년 2월 양국간 우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였고, 태국은 바트 경제권을 강화하기 주요 수단으로서 라오스와 투자 및 무역확대 등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라오스도 태국 방콕에 1993년 투자촉진사무소를 개설한 바 있고, 태국의 군인은행이 지점개설 인가를 취득하는 한편, 쿠론타이은행, 방콕은행, 태국농민은행 등이 지점을 개설하여 양국의 금융협력도 강화되어 왔다. 특히 태국은 라오스의 주요 전력구매자로서 라오스는 여러 측면에

서 태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태국 경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전력구매에 차질을 빚는 등 라오스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태국이 290건에 27억 5,143만 달러로 투자진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총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중도 43.1%에 이른다. 미국이 54건에 10억 7,304만 달러를 기록하여 2위이고, 말레이시아, 프랑스, 중국, 베트남 순으로 투자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6위로서 91건에 2억 2,733만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평균투자 규모는 건당 241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진출초

기에는 섬유, 신발, 봉제 등 다소 경공업 부문의 중소기업 투자가 있었으나, 미국의 최혜국대우조치가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대부분 철수하고, 현재는 중고차 매매업을 중심으로 투자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태국경제는 물론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진출이 급감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리오스 정부는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2001년 3월 총리령 46호로 리오스 외국인투자진흥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2002년 2월에는 외국인투자사업 관련 프로젝트 검토 및 승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령을 수정·보완하였다. 한편, 리오스 정부는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등의 주변국에 고위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국내 민간기업(SMEs)을 활성화하고 전반적인 투자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리오스 정부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2004년 4월 총리령 42호(Decree No.42/PO)를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핵심정책들과 실천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내 및 외국인투자법을 조정하여 투자규정

과 절차, 투자등록 과정을 조화시키고 내·외국인 투자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기로 하는 한편, ADB 및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투자환경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2백만 달러 이하의 투자사업을 지방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내·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승인 과정을 일원화하였다. 2004~2005년에 정부는 사반나켓(Savannakhet)주에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외국인에 대한 토지임대장벽을 낮추는 것을 포함한 투자환경 개선계획을 추진 중이다.

2004년 10월 '외국인투자진흥법' 개정을 단행하였는데, 새롭게 개정된 외국인투자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형태는 크게 경영협력계약, 합작, 100% 단독투자 등으로 구분하고, 합작의 경우 최소지분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기간은 50년이고, 최장 7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지리적 위치와 인프라 여건에 따라 투자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세

〈표 5〉 리오스의 투자인센티브와 세제혜택 기준

	지역별 분류기준	세제혜택	법인세율
Zone 1	경제하부구조가 없는 고원, 평지 및 산악지역	7년간 법인세 면제	10%
Zone 2	경제하부구조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고원, 평지 및 산악지역	5년간 법인세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15%
Zone 3	경제하부구조가 잘 정비된 고원, 평지 및 산악지역	2년간 법인세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20%

자료: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No. 11/NA, 22. Oct. 2004, pp15~18.



〈표 6〉

ASEAN 회원국의 CEPT 관세인하 현황(2004년 6월 현재)

	관세인하품목					품목 비중(%)				
	IL	TEL	GEL	SL/HSL	총계	IL	TEL	GEL	SL/HSL	총계
<b>ASEAN 6</b>	61,775	273	363	63	62,474	98.88	0.44	0.58	0.10	100
캄보디아	3,115	3,523	134	50	6,822	45.66	51.64	1.96	0.73	100
라오스	2,962	437	74	78	3,551	83.41	12.31	2.08	2.20	100
미얀마	4,777	630	48	17	5,472	87.30	11.51	0.88	0.31	100
베트남	10,143	33	424	89	10,689	94.89	0.31	3.97	0.83	100
<b>CLMV<sup>주)</sup> 소계</b>	20,997	4,623	680	234	26,534	79.13	17.42	2.56	0.88	100
<b>ASEAN 10</b>	82,772	4,896	1,047	297	89,012	92.99	5.50	1.17	0.33	100

주: CLMV는 ASEAN 후발가입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총칭.  
 자료 : ASEAN 사무국.

제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등 투자인센티브 조치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아직 지역구분의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역별 투자인센티브의 기본체제는 〈표 5〉와 같다.

셋째, 기존 투자인·허가를 담당하던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FIMC)를 투자관리위원회(Committee for Promotion and Management of Investment:CPMI) 산하 ‘국내외 투자촉진관리국(Department for Promotion and Manag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DDFI)으로 이관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현재 라오스는 새로 개정된 외자법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 중이며, 금년 중 투자인·허가 절차나 세부조치 등을 포함한 세부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라오스는 당 주도하에 안정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치적 안정 하에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진출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주변국에 비교하여 투자유치환경은 제도적으로 유리한 편이고, 법인세도 새로운 인센티브조치로 10~20% 수준에 불과하여 메리트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기지로써 라오스 투자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라오스에 대한 제조업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미국이 라오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지연해 왔기 때문인데, 라오스는 2003년 9월 미국과의 무역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무역관계(NTR)를 맺지 못하고, 지난해 12월에야 비로소 부시대통령의 재가로 최혜국대우를

6) AFTA는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적용품목(Inclusion List: IL), 잠정적 제외품목(Temporary Exclusion List: TEL), 일반배제품목(General Excluding List: GEL), 민감품목(Sensitive List: SL), 초민감품목(High Sensitive List: HSL)로 나누어 추진됨(자세한 내용은 권율 외, 2003 참조).

부여받게 되었다. 미국의 최혜국대우조치는 2005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향후 미국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의 투자진출이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미국과의 정상적 무역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WTO 가입협상도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라오스는 ASEAN 회원국으로서 역내 경제통합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후발가입국인 라오스는 적용품목(Including List: IL)의 83.4%를 관세인하계획(CEPT)<sup>6)</sup>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역내 관세철폐 목표를 201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표 6〉 참조).

## V. 맺음말

라오스는 내수시장이 작고, 내륙국가로서 개발에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제약요인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라오스의 경제개발과 빈곤퇴치 계획은 농촌개발, 도로개선, 보건 및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국인 투자환경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농업은 라오스 핵심산업으로의 성장과 소득증대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도로개선은 농촌 및 오지 소수민족에게 시장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건은 치료시스템의 지속적인 확충과 질병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인적자원개발은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양적·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빈개도국인 라오스 정부는 빈곤퇴치가 경제발전의 근간이며, 잠재성장을 높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각종 마스터플랜을 통해 빈곤퇴치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과 공업화의 원동력인 수출증대와 외자 유치에 역점을 두면서 부족한 자금과 경험, 인력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ADB와는 양해각서를 통해 빈곤감시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효율적인 빈곤관리를 하고 있다. 라오스의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정책은 국가 균형발전과 장기비전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촌개발과 도로정비는 산간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과 오지 주민들이 생계 수단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킴은 물론 시장경제로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특히 도로정비는 메콩강 개발사업(GMS사업)과 병행하여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국가비전인 내륙수송거점(Land-linkage Country)으로 변모하여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라오스의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정책은 세계은행과 IMF의 지원체제하에 정확한 빈곤의 현황을 파악하는데서 출발하여 국가 차원의 빈곤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부족한 예산을 국가우선순위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배정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재원과 기술이 부족한 라오스 정부 입장에서는 원조국의 지원이 절실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은 농촌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로 빈곤문제 해결과 지

---

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도시지역의 도로정비와 농촌 및 오지의 도로 건설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만,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정보획득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라오스 경제개발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고용기회의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라오스의 성장엔진인 풍부한 수력자원과 관광자원, 농업개발을 기반으로 라오스 장기발전 계획인 'Lao

PDR 2020'의 달성과 빈곤퇴치 환경조성을 위해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보건프로그램 제공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관계정상화로 지난 수십년 간 이어진 고립화를 탈피하여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에 따라, 라오스 경제개발과 공업화 추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국의 체계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 권 율, “라오스 경제개혁과 개발과제”, 정책자료 96-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2. \_\_\_\_\_, “ASEAN 주요국의 빈곤감축전략 및 ODA 활용방안”, 한국국제협력단, 1996.
3. 권율 외,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정책연구 03-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4.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Update*, 2004.
5. ASEAN Secretariat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SEAN Investment Area: Facilitation Series No. 1*, 2002.
6. ASEAN Secretariat, *ASEAN Investment Report 2001: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gional Integration*, 2001.
7.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04*, United Nations, New York, 2004.
8. IMF,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eparation Status Report*, 2003.
9. John Arnold, *Logistics Development and Trade Facilitation in Lao PDR*, 2003.
10. Lao Government, *Interim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2001.
11. McMillan, J. and Naughton, B., *Reforming Asian Socialism*,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12. Meier, G. M.,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3. Nick J. Freem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mbodia, Laos and Vietnam: A Regional Overview.”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Cambodia, Laos and Vietnam. 16-17th August 2002. Hanoi, 2002.
14. Olaf Unteroberdoerster, *Banking Reform in the Lower Mekong Countries*, IMF Policy Discussion Paper, 2004.
15. Suiwah Leung, Vo Tri Thanh and Kem Reat Viseth, *Integration and Transition - Vietnam, Cambodia and Lao PDR*, the Working Papers of Asia Pacific School of Economics and Government,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04.
16. World Bank, *Lao PDR : Economic Monitor*, World Bank Vientiane Office, 2004.